

제 68 호

서기 2000년(단기4333년4월 3일(월)발행
서기 1983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 (02)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 : (02)2243-1073



發行人: 金相祚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 2244-3717
FAX: (02) 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예금주: 안동김씨대중회

運營委員會 開催

지난 3월 14일 화요일 대중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협의 결정하였다.

1. 안동 충렬공 재실(飲水齋) 보수 추진위원 구성의 건
2. 高麗統一大殿에 忠烈公配享에 따른 協贊金 支出의 건
3. 花樹錄發刊 收支決算報告
4. 副會長 補選
5. 其他 討議

위 안건 1.에 대하여는 推進委員構成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 위원장은 會長으로 하며 各派會長(각파회장)을 위원으로 하며 추진 방법은 결원된 부회장을 보선한 다음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성키로 하였으며 로 2. 高麗統一大殿(고려 통일대전)에 충렬공 배향 협찬금 지출에 대하여는 아직도 여가가 있음으로 차후 다시 의논키로 하여 유보하였다.

3. 花樹錄發刊 決算報告는 결산서와 같다.

(총잉여금 15,761,659원)

4. 副會長 補選에는 상호 추천하고 그 가운데 다수의 동의자를 선임키로 하여 먼저 안렴사공과 회장 在澤賢宗께서 現理事인 聖會宗親을 추천하고 都評議公派 會長 聲秀賢宗께서 義城에 거주하는 昌會宗親을

추천하였고 翼元公派에서는 容學副會長이 現理事인 先會宗親에게 후임으로 추대하여 이 세분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5. 기타 토의 사항에 들어가

안동 충렬공 재실에 대한 토의를 한바 보수나 개축이나 하는 양안을 논의 끝에 우선 양안대로 견적을 받아본 후에 결정키로 하였다. 다음으로 財源確保方案을 論했으나 이 또한 운영위원회후 推進委員을 結成하면서 方案을 세우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2000.1.24~3.27

密直司使公派: 재영, 종묵
郡事公派: 재중, 태성
副使公派: 내균
文溫公派: 태연, 영국, 정희
都評議公派: 희국
提學公派: 철호, 준응, 성한
接廉使公派: 재관, 기현, 달수, 갑희, 상희, 태만, 진희, 태언, 태영, 권희, 사득

翼元公派: 대석, 광암, 종식, 상용, 영돈, 종식, 수복, 수홍, 충식, 수중, 재각, 경식, 완희, 수열, 만천, 영희, 재화, 경중, 재형, 대집, 재용
派末群: 수근, 현희, 용신, 명호, 태두, 석배, 오식, 용택, 창식, 종년
計 880,000

※통상회비는 년 20,000원 입니다.

평생회비 납부자

相祚(提, 大宗會 會長): 200,000

중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찬조자 명단

2000.1.31~3.4

拾萬圓: 재기(按, 前會長) 재인(郡) 영희(文)
五萬圓: 덕 회(翼)
四萬圓: 대 회(翼)
三萬圓: 일회(按), 鍾泰(郡), 상조(末), 회수(都), 용섭(末), 재광(末)
計 570,000원

誤字訂正

종보 67호 4면 '찬조자 명단 중 파미상의 봉수씨는 봉수(都)로 바로 잡습니다.



※교통안내※

- 좌석버스: 10, 50-1, 166, 205-1, 205-1, 302, 330, 523, 568, 745, 755, 765
- 일반버스: 2, 3, 5, 6, 8, 10, 15, 20, 30, 45, 50, 55, 55-1, 55-3, 77, 11, 131, 132, 165, 165-1, 166, 166-1, 215, 235, 302, 522
- 버스 이용하실 분은 "중랑교" 앞 하차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중랑교 방향)
- 회관 건너편 대성주유소에서 청량리쪽 100m



安東金氏大宗會會長 金相祚 白

二〇〇〇年 四月 二日

- 第三十三回 定期總會 開催公告
- 二〇〇〇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저 하오니 隣近宗親과 相互連絡하시어 많이 參席하심을 望하나이다.
- 다 음
- 日時: 二〇〇〇年 五月 六日 土曜日
午前十一時
- 場所: 서울동대문구 회경동 모란각 會議案件
- 一. 一九九九年度 決算承認
 - 二. 二〇〇〇年度 歲入歲出豫算案承認
 - 三. 一九九九年度 事業經過報告
 - 四. 二〇〇〇年度 事業計劃承認
 - 五. 副會長 補選認准
 - 六. 忠烈公齋室重建承認
 - 七. 其他事項
- 會費: 貳萬五仟圓(通常會費와 會費)
當日 晝食提供

元老會長님을 초빙하여 간담회 개최

지난 2월 22일 화요일 相祚會長께서는 서초동에 있는 기와집 순두부식당으로 歷代 원로회장님들을 초빙하여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한 다음 당면한 대종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이에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첫째, 안동 재실의 개와보수와 둘째 회관보수 이 두가지만 해도 엄청난 경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高麗統一大殿에 충열공 할아버지의 위패 배향경비 일천만원 또 안동 재실에 드러가는 진입로 포장과 화장실 이설 등등 많은 일들이 눈앞에 싸여 있음을 들어 이야기하였다. 참석하신 원로회장님들은 임원회비를 다시 부활하고 따라서 문고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고 충열공 전기를 먼저 발간하되 시판용

과 종친들이 소장할 책과를 구분하여 제작하고 종친들이 많이 소장토록 할 것이며 시판용은 읽기에 흥미있게 써서 많은 부수가 판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삼강록을 번역하여 증보판을 발간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독지종친의 기부채를 받는 방법과 파전을 놓는 일도 이야기 하였으나 기부를 받는 일은 소요금액을 어느정도 확보한 다음 약간의 모자라는 것을 받는 것이지 통채의 기부채는 불가능을 결론하고 2000년 말에 우선 충열공 전기부터 발간하기로 하고 모든 일은 조급히 서둘지 말고 차분히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을 의견을 모으고 相祚會長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음 점심식사를 마치고 하오 2시경 해산하였다.

仁川市 宗親會 定期總會 開催

지난해 12월 22일 20세기를 아쉬움속에 보내면서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이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뜻있는 종친모임을 가진 仁川宗親會는 仁川市 장안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임원 및 회원 백여명이 참석하여 대 성황속에 총회를 개최하였다. 弘植會長은 人事말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宗親會員님들은 건강하시고 밝은 빛으로 만남에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며 또한 늘 조상님의 음덕을 숭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항상 종친회를 염려하시여 주는 덕분에 이렇게 우리 인천 종친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사말이 있는 다음 宗親會에 엄정히 심사를 거쳐 선발한 효부표창이 있었다. 먼저 종육씨의 부인 김상현여사에게 효부표창패와 부상을 수



여하고 다음으로 종친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온 태향종친과 태환종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 중앙본부에서 命會 사무국장이 會長님을 代理해서 參席하고 격려의 말씀이 있는 다음 2부의 행사로 宗親들의 더욱 굳건한 단합과 화목화친을 다지기 위한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여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다같이 여흥을 만끽한 뒤에 늦은 시간 흐뭇한 마음으로 해산하였다.

증평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1일 안동김씨 증평종친회는 1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증평농협예식장에서 정기총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날을 경축하기 위하여 제학공과 회장이시며 괴산군 종친회 부회장과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장이신 鶴應賢宗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시어 격려사를 해주셨으며 증평농협 조합장으로 계신 봉회 현종께서는 이날 기념품을 마련해 주시었고 진천종친회에서 진천군수 종회현종께서 참석하시어 축하의 성금까지 해

주셨으며 대종회에서는 축하의 전화와 아울러 금일봉을 보내 주셨음을 감사드리다고 통보하여 왔다. 당일 총회에서는 99년도 결산보고와 사업보고에 이어 새로운 임원선출을 하였는데 임원 선거에 앞서 정관 일부를 개정하여 부회장을 5인이내에서 8인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인의 전형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在成(유임)
부회장 진웅(유임) 선희(유임)
태욱(유임) 재용(유임)
재연(신임) 봉희(신임)
용환(신임) 재화(신임)

총 무 장웅(유임)
감 사 태형(유임) 재홍(신임)
이상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 기타 여담을 나누며 점심식사와 반주를 겸하여 화기에애한 가운데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경 해산하였다. 이날 협찬금도 354만원이나 들어왔다 한다.

正義公派 宗親들게 알립니다

안동김씨 정의공파 파종회에서 파조이신 휘 哲할아버지 사적비와 설단묘를 봉안하기로 결의하고 지난해 8월에 충남 보령시 웅천읍 삼일 석공장에 추진위원과 함께 가서 儀物(의물)을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99년내로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수금이 미진하여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임으로 族宗(족종) 여러 어른들께서는 어려움이 많으실줄 사료되오니 부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를 촉구하오며 금년 4월 청명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내역

1. 사적비의 규모 높이 7尺 용판석 높이 2.5尺 거북좌대 높이 2.5尺 좌대 3단
2. 설단묘석책 사방석 3단 설단비 높이 4尺 용판석 높이 1.5尺 좌대석 상석 길이 3.5尺 폭 2.5尺 향로석 망주석 2개 하여 돌값이 1,240만원중 계약금으로 400만원 지불 하였다.

● 성금납부 온라인 계좌 번호
임동농협 707152-51-013712
예금주 김성만
安東金氏 正義公派宗會
會長 金 성만 백

富平都護府使諱誠童墓碑改修竣工

지난 3월 16일 翼元公 六世孫 嘉善大夫 行富平都護府使 諱誠童 墓碑改修竣工告由.

嘉善大夫贈大司憲行富平都護府使安東金公諱誠童 配 貞夫人 晉州姜氏 之墓

公의 諱는 誠童이시고 字는 明甫 號는 蹄溪이시니 姓은 金氏요 安東人이라 系出은 新羅 敬順王後孫으로 西紀 一四五二年 文宗壬申에 諱翼元公 諱士衡의 五世孫이며 諱文靖公 諱碩의 第四子로 誕生하시었다.

우리나라의 氏族중 族譜에 드러난 家門은 얼마 안되는데 世代가 오래되고 繁昌한 家門은 新羅 敬順王의 後孫보다 더 낡은 家門은 없도다. 中始祖이신

諱 忠烈公 諱 方慶께서는 高麗 朝에서 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都僉議中贊判 典理司事 世子師 封上洛郡開國 公으로 이름난 名相이자 名將으로 靑史에 燦爛한 빛을 내어 名聲을 드높이셨고 朝鮮朝에서 公의 高祖이신 諱 翼元公 諱 士衡께서 純忠奮義佐命同德開國一等 定社三勳 推忠協贊靖難定社 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政丞封 上洛伯府院君이셨으며 曾祖는 密直使公 諱 陞께서 同知密直司使 兼 都評議司使 贈 議政府 左贊成이셨고 祖는 同樞公 諱 宗淑께서 正憲大夫議政府 左贊成 贈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上洛府院君이셨고 祖妣貞敬夫人 慶州 李氏에서 (3면에 계속)

公告

翼元公派 定期總會 開催

일시: 2000년 5월 5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대양익집 TEL 835-4000
위와 같이 안동김씨 익원공파 총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주시길 간망하나이다.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회장 金容大 白



祝昇進

忠烈公22代孫 翼元公18代孫 相默賢宗은 三軍司 作戰處化學 課長 大領으로 在職中 2000年 1月1日付로 陸軍本部 化生防 防護司令官 准將으로 昇進하였기에 이에 祝賀드립니다.

(2面에서 계속)

四男一女로 文靖公碩孝昭公碩牧使公 碩 豐陽君碩사위 洪義達을 두시니 長男이신 考位는 諡 文靖公 諱碩이시며 字는 可安 號는 雙谷으로 世宗朝에 文科佐翼佐理 兩勳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封上洛府院君이시고 妣位는 貞敬夫人 東萊鄭氏로 領議政 昌孫의 따님이며 五男二女를 두시니 長男 諱義童은 驪州牧使 吉安君이고 次男 諱禮童은 經歷公이며 三男 諱智童은 永興府使이고 四男 諱誠童은 公이시고 五男 諱利童은 通政牧使고 사위는 富林君 李湜과 生員 辛銑이다 公은 어려서부터 天稟이 重厚하며 言笑를 삼갔는가 하면 또한 産業을 일삼지 않고 門閥에 의지함이 없이 學問을 篤實히하여 同僚들중에 뛰어나시었으며 抱負가 遠大하니 나라의 큰 그릇이 되어 有能한 官吏로서 宰相감으로 世人的 期待를 모았다 처음에 家門의 蔭德으로 義禁府都事에 任命되시고 司饗院主簿 司憲府監察 積城縣令 司瞻寺主簿 義城縣令 成宗 壬子에 文科 三等으로 及第兪知中樞府事 富平府使 嘉善大夫에 이르고 配位는 貞夫人 晉州姜氏로 左贊成 希孟의 따님이며 일찍부터 婦德과 禮度를 지켜 家門을 中興시키고 三男五女를 두시니 長男 洵는 禦侮將軍 贈 吏曹參判이시고 配位는 貞夫人 永川李氏요 二男三女를 두시니 長男 彦洪는 禦侮將軍 贈 通政大夫 兵曹參議 次男 彦潯는 贈 左丞 旨며 사위는 梁鮮 姜汝斗 鄭乃吉이고 公의 次男 潁는 副護軍 贈 兵曹參判이시며 配位는 貞夫人 丹陽禹氏요 五男을 두시니 長男 彦泌 次男 彦溥는 軍資監 正 三男 彦沈은 文科 刑曹參議 贈 領議政 四男 彦涵 五男 彦湘은 副護軍이요 公의 三男 潁은 文科 內翰修撰 水原郡守 掌隸院 判決事 贈 吏曹參判이시고 配位는 貞夫人 慶州李氏에서 長男 別提 得齡과 또 貞夫人 延安李氏에서 三男一女를 두시니 次男

億齡은 文科 觀察使 贈 吏曹判書 大提學 三男 百齡은 贈 左丞 旨 四男은 九齡이며 사위는 李幹이다 公의 사위는 直長 李如晦 司圖 金石璘 縣監 柳壽千 郡守 崔秀俊 司果 韓繼常이다 公께서 哀惜하게도 西紀 一四九五年 燕山 乙卯 陰 十月三十日에 享年 四十四歲로 일찍 下世하시니 아 슬프도다 이 어찌 運命이 아니겠느냐 夫人은 公보다 석달전에 世上을 떠나셨는데 墓所는 京畿道 始興市 下上洞 職串里 山五番地 申坐原雙墳으로 安葬되시다 公의 三男 潁이 立石한 墓碑가 現存하나 長久한 歲月의 風霜으로 字劃이 磨耗되어 記錄을 分揀할 길이 없어 근심하여 오던 중 大司憲公 宗會 兪位께서 精誠을 모아 이에 새로이 改竪하노니 살아있는 者에게는 때를 주지 않았고 賢明한 者에게는 壽를 주지 않았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어려움을 만나 그 고생스러움이 끝이 없으나 뛰어난 才能을 이어받아 名聲을 드날리게되니 公의 性品과 行蹟은 길이 讚揚되어 後孫은 勿論 世人的 龜鑑이 될 것이요 이룩하신 功績으로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시니 그 燦爛한 業績 千秋에 傳하여 無限히 빛나고 그 後光이 子孫들에게 永遠히 이어질 것이다
西紀 二〇〇〇年 三月 日 改竪
安東金氏翼元公派 大司憲公宗會 會員一同

백범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2000년 6월 기공·2002년 6월 완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는 '백범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백범기념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평 1,200평 규모이며 총 예상소요비용은 150억원이 될 전망이다.

1) 사업 개요

위치: 효창공원내 노인복지회관·테니스장 일대
시설물: 기념관, 기념 조형물, 기타 부대시설
소요예산: 약 150억원(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기간: 1999년 4월~2002년 6월(변동 가능)

2) 기념관 건립

규모: 연건평 약 1,200평(층별 300평, 지상 3층 지하 1층)
시설: · 지하1층: 주차장, 창고, 시설물 관리실, 휴게실 등
· 지상1층: 상설 전시실

· 지상2층: 자료실 및 자료 열람실, 사무실 기타
· 지상3층: 대회의장, 소회의장, 영상실 등

기타 부대 시설물: 동상 등 기념물, 기타 부대시설(구체적 건립방안은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확정 예정)

3) 김구선생 관련 자료 모집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김구 선생 및 임시정부 관련 자료 모집

4) 예상 소요 예산 및 확보 방안
예상소요예산: 150억원
확보방안

· 국비 지원: 100억원

· 국민 모금: 50억원

5) 향후 일정

기본계획 확정:

2000년 1월~2000년 3월
기념관 현상공모 및 기본 설계
2000년 3월~2000년 5월
실시설계:

2000년 5월~2000년 10월
기공식: 2000년 6월
공사완공 및 개관: 2002년 6월

學位取得

忠烈公23代孫 翼元公十九代孫인 在勳賢宗께서는 지난 2월 17일 仁濟大學校 醫科大學 保健大學院 學位授與式에서 保健學博士學位를 取得하였음을 祝賀드립니다.

訃音

大宗會 前會長이시며 顧問이신 泰亨 賢宗의 室人 江陵劉氏께서 지난 3월7日 老患으로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別世하셨기에 玆以 訃音을 傳합니다.

發軔 2000년 3월 10일 오전 8시
葬地 公州군 계룡면 내흥리선영하 嗣子 應植,燦植,敎植,源植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780-8478

자택: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2호)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族譜 프로그래밍 自體開發 成功

族譜出版의 元祖

回想社 6大 特徵

1. 創立 47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로 迅速, 正確한 電子組版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春田體(漢文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僻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誤謬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 確保
6. 1,000餘坪 以上の 넓은 倉庫를 頒快完了때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컴퓨터만 있으면 索引을 통하여 派, 世, 代를 檢索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既 發刊된 族譜도 CD製作)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마늘하고 快適한 處으로 移轉하여 各 門中の 收單,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支社 略圖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앞 강변한신코아 1412호입니다.

族譜, 古書 回想社 出版, 製冊

본사: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47-4

電話(042)253-9881~3 Fax(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 718-9881 Fax (02) 718-9882

麗末忠義列傳에 收錄된 우리 先祖任들 約記

社團法人 高麗崇義會出版部에서 出刊한 麗末忠義列傳에 收錄된 先祖任들의 約記를 이번 68호 宗報에 紹介합니다.

義節編

康隱 金七陽 (? ~ ?)

호는 강은(康隱)이니 안동인(安東人)으로 첨의평리(僉議評理) 후(厚)의 아들이요 밀직사사승용(密直司使 承用)의 손자요, 가정 이곡(稼亭 李穀)의 문인이자다.

공(公)은 젊어서부터 재주와 덕망이 뛰어났으며 일찍이 성리학(性理學)을 강구하여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와 재종인 척약재 김구용(惕若齋 金九容), 목은 이색(牧隱 李穡)을 증유(從遊)하여 그 의리 명분을 같이 하였다. 《世譜》 여말에 늦게나마 수안군사(遂安郡事)를 지냈으나 고려가 망한 후에는 절의를 지켜 강진(康津) 금릉산(金陵山) 선묘하(先墓下)에 은거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삼아 여러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大東奇聞》 공(公)이 모든 아들들에게 훈계하여 이르기를, “나는 옛 고려국의 세신(世臣)으로 비록 나라와 함께 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너희들의 학문을 닦아 충성으로 새나라의 성왕(聖王)을 돕도록 하라” 하였다. 아들 진(鎭)과 돈(墩) 형제는 과연 친명을 좇아 조세(早歲)에 등과(登科)하여 모두 제학(提學)이 되었다. 《世譜》

靖節編

自述翁 金鈿 (? ~ ?)

호는 자포옹(自述翁)이니 안동인(安東人)으로 판삼사 장(判三司 場)의 아들이요 벼슬이 영동정(令同正)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正2品이다. 고려가 망함에 망복(罔僕)의 뜻을 굳게 지켜 큰 형님 부정 일(副正 鎰)을 피시고 뜻을 같이하는 제현과 함께 서쪽 벽란진(碧欄津)을 건너서 수양산 서쪽 삼곡리 해추(海誼) 마을에 은거하여 스스로 그 節義를 지켰다.

선생이 은거하자 처음에 마을 이름을 자포동(自述洞)이라 하고 또 선생의 호로 삼으니 이는 세상에서 숨어살고자 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마을 뒤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어 항상 이 산에 올라가 개성 송악산을 돌아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며 고국을 사모하는 슬픈 뜻을 새겨 그 봉우리를 고려봉(顧麗峰)이라 이름부치니 이는 전 임금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선생의 그 청고(淸高)한 지절(志節)이 지금도 전승(傳誦)되고 있으며,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뒤에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에

배향하였다.

靖節編

典書 金成牧 (? ~ ?)

공은 안동인(安東人)으로 구(玖)의 아들이요, 밀직사사승용(密直司使 承用)의 손자요, 평장사 방경(平章事 方慶)의 후손이다.

여말에 벼슬이 공조전서(工曹典書)에 이르렀다. 때에 고려를 반역하고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조정에 창궐하여 고려의 운이 기울어가자 선생은 문하평리(門下評理 卞贊), 판서 성만용(判書 成萬庸), 박사 정몽주(博士 鄭夢周), 제학 홍재(提學 洪載), 대사성 이색(大司成 李穡), 전서 조열(典書 趙悅), 전사 이오(李午) 단구재 김후(丹邱齋 金後) 등과 공당에서 기약없이 모여 술을 기울이며 정란(政亂)을 상심개탄하다가 합잠시(合簪詩)를 지어 읊고 눈물을 흘리며 이색(李穡)이 말하기를,

“옛날 은(殷)나라에 3인(仁)이 있어 나라가 망하자 비간(比干)은 죽고, 미자(微子)는 가고, 기자(箕子)는 종(宗)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도 각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합시다.” 하고 마침내 고려가 망함에 모두 망복지신(罔僕之臣)의 절의를 지켜 은거하였다.

義節編

學堂 金休 (? ~ ?)

자는 연부(鍊夫)요, 호는 학당(學堂)이고 성목(成牧)의 자(子)로 안동인(安東人)이다.

공은 고려말에 사간(司諫)을 역임하고 《金承露 實錄》 고려가 망함에 향리(鄉里)에 퇴遁(退遁)하여 조선조에서 여러차례 벼슬을 주어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후학을 교육하면서 그 정절(貞節)을 지켰다. 《大東韻府群玉》 유고(遺稿)가 있다.

表節編

梧隱 金士廉 (1335~1405)

호는 오은(梧隱)이니 안동인(安東人)으로 부밀직사사(副密直司事) 천(諱)의 아들이요, 좌정승 북창부원군(福昌府院君) 영후(永煦)의 손자요, 이조개국 1등 공신 사형(士衡)의 형이며 문정공 신현(文靖公 申賢)의 문인이자다.

젊어서 학문에 정진하여 공민왕 초기에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시랑(門下侍郎) 正2品을 역임하고 벼슬이 안렴사(安廉使)에 이르렀다. 《景賢祠誌》 선생은 문학과 기절(氣節)로 세상에서 추중(推重)하였으며 정포은(鄭圃隱) 이목은(李牧隱)과 친교를 맺고 함께 직언(直言)으로 간(諫)함으로써 저명하였다. 공민왕 14년(1365) 왕이 신돈(辛旽)을

총애하여 직급을 올리고 공 신호를 내리자 선생이 충분의격(忠奮義激)하여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며 이르기까지,

“신돈은 바른 사람이 못되며 후에 반드시 정치를 어지럽힐 것이요, 그렇게 되면 고려의 사직(社稷)은 장차 혈식(血食)을 얻지 못하리이다.” 고 하였다.

《大東奇聞》

드디어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을 개국함에 청주 오근촌(梧根村)으로 숨어들어가 일찍이 한양을 향하여 앉지 아니하고 매양 “열녀는 불갱이부이거늘 충신이 어찌 두 임금을 섬길 것이냐” 〈烈女不更二夫 忠臣豈事二君〉하였다.

조선조에 불복하고 오직 고려만을 사모하며 그 강개한 충성으로 의리를 같이하는 동지들과 운곡(耘谷)의 집으로 모여 단사(壇祀)에 종참(從參)하였다. 이 단사는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 선생이 고려의 종사(宗社)를 잊고자 원주 치악산(雉岳山) 정상에다 단(壇)을 만들어 단군·기자·고려태조 등 열성(列聖)과 공민왕·여흥왕·윤왕·간성왕 등 변혁(變革)을 당한 왕들을 비롯하여 고려조에 충성하다가 살

신성인(殺身成仁)한 충신들을 매년 춘추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이태조가 선생에게 좌사간(左司諫)을 삼아 여러차례 불렀어도 나아가지 않고 드디어 도산(陶山)으로 옮겨가 더욱 문을 굳게 닫고 손님도 거절하였다. 임종이 다가옴에 여러 아들을 돌아보며 이르기까지,

“나는 고려조에 옛 신하로서 이미 임금을 도와 국가를 존속시키지 못하고 나라가 망함에 또한 몸을 순국치 못한 천하의 죄인이니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선왕을 뵈옵고 선조를 함께 하겠는가 내가 죽으면 깊은 산중에 장사하여 봉분도 짓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이미 전조에서 벼슬한 자는 다시 벼슬하지 말라”고 유계(遺戒)하였으므로 그 유명을 좇아 평장하였다.

숙종 34년(1708) 송천사(松泉祠)를 세워 향사하고 뒤에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과 경현사(景賢祠)에 배향하였다. 뒤에 숙종(肅宗)은 선생의 충절을 가상하여 “일편도산(一片陶山) 만고수양(萬古首陽)”이라는 과제로서 응과생(應科生)에게 과거를 보였고,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은 충병일월(忠炳日月) 절고산악(節高山岳) 일편도산 만고수양(一片陶山 萬古首陽)이라 하였다. 《世譜》

詩 한首

이 詩는 惕若齋 金九容 諡號 文溫公 할아버지께서 江陵으로 돌아가는 金漢寶生員을 보내며 읊은 詩인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陵大都護府에 실린 詩로 요지음 애주가가 선호하는 뉴그린 소주 상표에 인용하고 있다.

江陵의 산수는 천하의 으뜸이라

天台山·羅浮山에 참으로 버금가네.

넓은 파도가 땅을 말아 오니 蓬萊山·瀛州山이 가깝고 높은 고개가 하늘을 깎아지르니 泰山·華山인 듯 싶네.

寒松亭 위에는 맑은 바람이 현묘한데

鏡浦臺 앞에는 밝은 달을 가두었네.

나는 옛날에 풍속을 살피러 고삐 잡고 나가서 물가 천리에 준마를 달렸네.

큰 소나무와 괴이한 바위가 금안장에 비치는데

젓대소리와 가느다란 노랫소리에 술잔을 기울였네.

지금도 10년 세월이 꿈 속 같은데

서울의 티끌 속에서 불우한 신세라네.

수문 동쪽 둔덕의 늙은 선생은

풍류가 儒雅하여 참으로 長子라네.

그 손자 漢寶는 成均館에 유학하여

학업이 정밀하고 밝아 上舍로 있네.

飄然히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뵈러 돌아가는데 돌아보니 가을 구름은 더욱 맑고 깨끗하네.

아름다운 기약이 오랫동안 어그러져 덧없이 한스러우니 만약 신선을 만난다면 나를 위해 사례드리게.

江陵山水甲天下
天台羅浮誠可亞
洪濤券地近蓬瀛
峻嶺摩天疑泰華
寒松亭上清風微
鏡浦臺前明月鎖
我昔觀風攬轡行
汀州千里馳駿馬
長松怪石照金鞍
羌笛纖歌傾玉壘
只今十年如夢中
京華塵土逢斬軻
水門東畔老先生
風流儒雅眞長者
其孫漢寶遊成均
學業精明居上舍
飄然一朝覲親歸
回首秋雲更蕭灑
佳期空恨久蹉跎
若見神仙爲我謝

